

투데이 칼럼

북한의 강화된 감시 처벌

코로나19 시기, 북한은 국경 폐쇄로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법안을 채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통제가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공개적으로 수감까지 채워 체포했다. 가족 신상을 공개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가족의 신상을 밝히며 연좌제까지 적용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남한 영상물에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다큐멘터리가 한번 만들어졌다. 그때 다뤘던 사람들은 대개 성인들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6세부터 18세까지 어린 청소년들이다.

코로나19 시기 중국과의 교역 중단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자,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나온 것이 지역경제, 그다음에 자립경제, 사회주의 강화였다.

사회주의적 문명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법 제도와 함께 단속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 통제를 위해 감시와 단속도 자연스럽게 강화됐다. 온갖 반사회

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철저히 제압, 소멸하기 위한 투쟁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교양 사업이나 사상 선전 활동도 이뤄졌지만, 비공개 감시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도 평양의 경우 사회 풍속 정비를 이유로 들며 몰래카메라 형식의 고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금연법까지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 행동이 비도덕적, 비문화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비난이 조금 과하다 싶은 장면도 있다. 북한이 수도 평양을 다른 지역보다 각별히 신경 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감시와 통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단속과 감시, 처벌 속에서도 북한이 말하는 비사회주의의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상교육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마저도 휴대전화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주고받고, 몰래 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실이, 또 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자백하는 20대 북한군 병사는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127개,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고 말한다.

군인들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스케줄', '카운터'와 같은 영어식 표현과 '소개팅'과 같은 한국식 표현도 담겨 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단속은 쉽지 않을 거란 평가다.

특히 건설 지원 등 바깥 활동이 많은 북한군의 특성상 외부 문화 확산이 순위를 거라는 분석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증거 잡기도 쉽지 않을 거란 게 군인 출신 탈북민의 증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금품을 얻기 위한 각종 범죄도 증가했다.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살림집 허가증을 훔쳐 팔아 부당 이익을 쟁긴 뒤 달아나거나, 은이나 마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불법행위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작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공식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자체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체제다.

일부 주민들은 경제활동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한다. 각종 견제품을 판매하는 어느 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다 불법 증거까지 해 단속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민은 오히려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반발한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처벌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외부 세계를 향한 관심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르카 아메리카' 트로피 받는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호르헤 마스 공동 구단주로부터 마르카(MARCA) 아메리카 트로피를 받고 있다. '마르카 아메리카'는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이틀을 획득한 메시를 기념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호박 무게 측정하는 대회 관계자들



지난 17일(현지시간) 리트비아 리가에서 제19회 리트비아 최대 호박 선수권대회가 열려 관계자들이 출품 호박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사설

2024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미술작품전

2024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미술작품전이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예술회관 미래내, 차오름 1.2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미술 그리고 디자인과의 제22회 정기전이

다.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시도가 어우러진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일상을 가득 채웠던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았다. 특히 울려 퍼지는 여름을 견디고 작업에 몰두하여 멋진 작품을 탄생시켰다.

한안 빈 도화지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던 시작이 무색할 만큼 여름 내내 열정을 다했다.

작품을 한 땀 한 땀 완성하며 가을처럼 영글어 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은 어설피고 부족하지만 최고의 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지난날의 작품이다. 조미경 교장은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시회에 함께 하셔서 따뜻한 격려와 박수로 자리를 빛내 주신다면 학생들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응원해 주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 스물 두 번째 전시회에 함께 하여 학생들의 노력으로 빛을 아름다움을 선물 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유달리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여유 없던 마음에 숨통이 트이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여유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발돋움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언2길 68-13에 위치하고 있다.

명절 연휴 인천공항

이번 추석 연휴(9월 13~18일)에 하루 평균 20만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 여객 120만 4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역대 추석연휴 최대 기록이다.

이전 최고기록은 2017년 추석 연휴에 기록한 일평균 18만 7629명으로, 올해 예측치는 이보다 7%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대비 11.6%,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 대비 11.8% 각각 증가했다.

공사는 최근 동남아, 일본노선 선호를 바탕으로 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이번 연휴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21만 3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예측됐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12만 1000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11만 7000)로 전망됐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출국을 위해 '제1여객터미널 장애인안심센터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공항 누리집에서 휠체어 대여, 체크인 지원 등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하면 대기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을 탄력 운영하는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심야 공항버스의 경우 지난 8월 인천공항-서울 구간 심야버스가 기존 대비 총 6회 증편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개 노선(일 편도기준 총 28편) 대비 대폭 확대된 총 14개 노선(총 82편)이 현재 운행 중이다.

올 추석 연휴기간에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협업한 퓨전 창작국악 공연(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업한 K-전통뷰티 체험(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진행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